

# 석기를 통하여 본 금옥동굴유적문화층의 시기에 대한 이해

리 재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물정리를 잘하여야 유물과 자료에 대한 종합적연구를 옹게 추진시킬수 있으며 분석과 종합을 잘하여야 년대를 확정하고 그 시기의 사회경제형편과 문화발전정도를 정확히 밝혀낼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권 96페이지)

고고학연구에서는 해당 유적과 유물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잘하여야 유적의 년대와 성격 등을 과학적으로 밝혀낼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옥동굴유적에서 나온 9점의 타제석기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문화층을 구분하고 해당 문화층들의 시기를 밝히려고 한다.

타제석기는 구석기시대사람들이 가장 널리 리용한 로동도구의 하나로서 그 갇춤새를 정확히 분석종합하는것은 해당 유적의 시기를 정확히 확증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유물들은 해당 시기만을 반영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는것과 함께 같은 종류의 유물이라고 하여도 형태와 크기, 재료와 제작수법 등에서 시기에 따라 차이를 가지는 특징을 가진다.

종류구성이나 형태, 크기, 재료, 제작수법 등은 모두 해당 시기 유물의 갇춤새를 특징짓는 세부징표인 동시에 기본징표로 된다. 여러 지층에서 출토되는 석기들을 옹게 분석하자면 이러한 세부징표들을 놓고 서로 비교하여 류사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는 과정에 그 특징을 구분해보아야 한다.

서로 류사한 점이 많다는것은 해당 지층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된 지층들이라는것을 보여주며 차이점이 많다는것은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지층들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세부징표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종류구성이다.

이 유적에서 나온 9점의 석기들을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찌개, 굽개, 찌르개, 밀개, 새기개로 구성되어있다.

4층에서는 찌개, 굽개, 찌르개가 나왔으며 6층에서는 찌르개와 밀개, 7층에서는 찌개와 새기개가 나왔다. 여기서 찌개는 구석기시대전기부터 널리 리용한 석기로서 이 찌개를 가지고 문화층별차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찌개가 제일 아래층인 4층에서도 보이며 제일 마지막층인 7층에서도 보이기때문이다.

굽개는 구석기시대중기부터 출현하여 리용된 석기로서 제4층에서만 보이고 다른 층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찌르개도 굽개와 마찬가지로 구석기시대중기부터 널리 리용된 석기이다. 이 찌르개가 4층과 6층에서는 보이지만 7층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찌개, 굽개, 찌르개를 보고 이 문화층들의 호상 차이점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종류구성에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것은 밀개와 새기개이다. 그것은 이 종류의 석기들이 구석기시대 늦은 시기 석기갇춤새를 이루는 석기들으로써 그것들이 6층과 7층에서는 보이지만 4층에서는 보이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면 4층에서는 왜 이런 석기들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이 유적은 발굴전에 이미 많은 퇴적부분이 잘리워나간 상태였다. 따라서 일부 유물들

이 잘리워나간 퇴적속에 묻혀있다가 류실될수 있었으리라는 조건을 생각해볼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석기들가운데서 찌개나 주먹도끼와 같은 비교적 큰 석기들은 몇점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이 자그마한 석기들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5개의 석기가 발견된 4층에서 오히려 그 개수가 적어야 할 찌개가 3점씩이나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석기는 단 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확실히 이 지층이 6, 7층과는 시기를 달리하는 석기갖춤새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세부징표에 따르는 석기분석자료

지층	유물번호	종류	형태		크기(cm)	제작수법
			전체 형태	날의 형태		
7	70-7-1	찌개	둥그스름한 형	둥그스름한형	13.2×10.5	대고때려떼기
	70-7-2	새기개	직4각형	빗선형	5×4.7	대고때려떼기, 눌러뜯기
6	70-6-1	찌르개	삼각추형	뿔죽끝형	8.7×6	눌러뜯기
	70-6-2	밀개	도끼형	직선형	7.1×5	대고때려떼기, 눌러뜯기
4	70-4-1	찌개	삼각형	직선형	14.6×10.6	내리쳐깨기, 때려떼기
	70-4-2	찌개	제형	빗선형	10.7×8.8	내리쳐깨기, 때려떼기
	70-4-3	찌르개	삼각추형	뿔죽끝형	12.8×7.5	내리쳐깨기, 때려떼기
	70-4-4	찌개	둥그스름한 형	삼각형	8×6.8	내리쳐깨기, 때려떼기
	70-4-5	긁개	둥그스름한 형	오목날형	7.9×6.9	내리쳐깨기, 때려떼기

세부징표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석기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석기는 종류에 따라 일정한 형태상차이를 가진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석기라고 하여도 시기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차이를 가지며 보다 세련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태적차이는 석기의 전반적인 생김새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날부분의 제작수법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실례로 찌개를 본다면 이른시기에는 날부분이 일정한 규칙성이 없이 여러가지 형태를 취하였지만 후기에 들어서면서 둥근 모양이나 짧은 직선모양 등의 형태로 고착되는 특징이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이 유적에서 나온 찌개들을 비교해보면 4층에서 나온것과 7층에서 나온것이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는것을 알수 있다. 4층에서 나온 3점의 찌개는 날이 빗선형, 삼각형, 직선형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하지만 7층의 찌개는 늦은 시기의 유적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둥근 모양의 날을 가진다. 이런 둥근 모양의 날을 가진 찌개들은 구석기시대후기에 해당되는 청파대동굴유적 8, 9층, 룡곡 제1호동굴유적 제3문화층에서도 볼수 있다.

4층의 찌개들은 그 전반적인 형태가 세련된 감이 없어 투박하다. 반면에 7층의 찌개는 비록 손잡이부분이 전반적으로 자연면이라고 하지만 손에 잡기 매우 편리한 형태를 가지면서도 날부분도 내리찍어 그 무엇을 자르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예리하게 가공되었다. 이것은 4층의 석기와 7층의 석기가 시기적으로 차이를 가진다는것을 보여준다.

세부징표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석기의 크기이다.

일반적으로 석기는 이른시기부터 늦은 시기로 오면서 크고 거칠은 석기로부터 작고 날이 보다 예리한 석기로 발전해오는 특징이 있다.

치층에 따라 크기를 대비해보면 4층의 석기들은 길이, 너비가 평균  $11.1 \times 8.1\text{cm}$ 로서 제일 크고 6층의 석기들은  $7.9 \times 5.5\text{cm}$ 로서 제일 작다. 반면에 7층의 석기들은 크기가  $9.1 \times 7.6\text{cm}$ 로서 중간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크기가  $13.2 \times 10.5\text{cm}$ 되는 찌개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7층에서 나온 석기중에서 제일 작은것이  $5 \times 4.7\text{cm}$ 의 크기를 가진다고 볼 때 크기비중에서 7층의 석기들이 4층과는 차이를 많이 가지며 오히려 6층과는 유사한 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세부징표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제작수법이다.

석기의 제작수법은 해당 석기에 남아있는 가공흔적들이 어디에 어떻게 형성되어있는가 하는데 따라 구분되는 세부징표이다. 다시말하여 가공흔적들이 몇차의 타격으로 완성되었으며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타격되었고 그 크기와 패임상태는 어떠한가 하는것들로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세부들은 석기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어떤 제작수법으로 석기를 얼마나 쓸모있게 제작하였는가 하는것을 반영한다.

제작수법은 석기를 제작할 때 내리쳐냈는가 때려떼였는가 혹은 대고때렸는가 하는것과 같은 기능상의 측면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석기는 이른시기일수록 타격회수가 그만큼 작아지고 이로 하여 가공면이 많지 않을뿐아니라 떨어져나가는 격지들도 크며 날부분에서도 미세가공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늦은 시기로 오면서 석기는 타격회수가 보다 많아지고 그로 하여 가공면이 많아질뿐아니라 패각단구가 작고 날부분에는 날을 예리하고 강화하기 위해 작은 물결모양이나 평형모양과 같은 미세한 세부가공을 한 흔적이 잘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이른시기로부터 늦은 시기로 오면서 사람들의 인식능력과 창조적능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로동도구제작에서 숙련과 경험이 풍부해졌을뿐아니라 보다 발전된 제작수법들을 적용하여 왔기때문이다.

여기서 내리쳐깨기, 때려깨기와 같은것은 이른시기에 쓰이던 저급한 제작수법이며 대고때려떼거나 눌러뜯기는 늦은 시기에 쓰인 보다 발전된 제작수법이다.

이 유적에서 나온 석기들의 제작수법을 분석해보면 4층에서 나온 석기들은 가공면에서 큰 격지를 떼여낸 흔적만 있는 반면에 작고 미세한 격지를 떼여낸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날부분의 제작수법에서 여러차례의 반복타격을 가한 흔적은 보이지만 패각단구들이 규칙적으로 원할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이면서도 울퉁불퉁한 굴곡이 심하게 나타나있다.

그러나 6층과 7층에서 나온 밀개나 새기개, 찌개들은 날부분에 대한 가공에서 작은 물결모양이나 평형모양과 같은 세부가공을 여러차례 한 흔적들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4층의 석기들은 내리쳐깨기나 때려깨기와 같은 제작수법들만을 적용하여 만들었다면 6층과 7층의 석기들은 앞에서 본 이른시기의 가공방법들인 내리쳐깨기나 때려깨기와 같은 수법들을 적용한 다음에도 대고때려떼기나 눌러뜯기와 같은 보다 발전된 제작수법들을 더 적용하여 만들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석기의 종류와 형태, 크기, 제작수법 등에 의한 비교분석자료를 통하여 6층과 7층의 석기들은 서로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있고 이와는 반대로 4층의 석기들은 6층과 7층에서 나온 석기들과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6층과 7층이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된 문화층들이고 4층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 형성된 문화층으로서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4층을 제1문화층으로, 6, 7층을 제2문화층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러면 이 두개의 문화층이 각각 구석기시대의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제1문화층은 이 유적에서 4층에 해당된다.

이 4층에서 나온 5점의 석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들을 종합하여볼 때 제1문화층이 우선 구석기시대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것은 석기의 종류구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4층에서 나온 5개의 석기중에는 구석기시대 이른시기부터 널리 리용되던 찧개와 함께 굽개, 찌르개가 포함되어있고 다른 종류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제1문화층에서는 구석기시대후기에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세석기부류의 밀개나 새기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발견된 5점의 석기중에서 세석기가 단 한점도 보이지 않는다는것은 제1문화층의 유물갖춤새가 종류구성에서 중기에 해당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굽개는 구석기시대중기를 특징짓는 석기의 하나이다.

크기를 보아도 4~6cm정도인 작은 석기들은 보이지 않으면서 대체로 크기가 10cm이상인 석기들로 구성되어있는것도 역시 제1문화층이 후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제작수법을 통해서도 제1문화층이 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제1문화층에서 나온 5점의 석기들에서 대고때려떼기나 눌러떼기와 같은 보다 발전된 제작수법들을 적용한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문화층의 석기가 전기에 속하는가 아니면 중기에 속하는가 하는것이다.

만일 이 문화층의 석기들이 전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종류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석기형태와 크기, 제작수법 등에서는 이른시기의 석기들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들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전기의 석기들은 크고 투박하면서도 형태가 뚜렷하지 못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 문화층에서 나온 석기들은 크기가 평균 11.1×8.1cm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구석기시대전기의 검은모루유적에서 나온 석기들의 평균크기 16.5×11.2cm보다 작으며 형태에서도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 문화층의 석기는 구석기시대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제1문화층의 유물갖춤새는 구석기시대전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또 후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문화층은 구석기시대중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제2문화층은 제1문화층우에 놓인 층이다.

층위학적으로 볼 때 제2문화층은 제1문화층 다음시기에 해당되는 층이라는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구석기시대는 시기적으로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고 제1문화층이 중기에 해당되는 층이므로 제2문화층은 구석기시대후기에 해당되는 층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본 세부징표에 따르는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통하여 더 잘 알수 있다.

즉 종류구성에서 밀개나 새기개와 같은 석기들이 포함되어있다는것, 크기에서 4~6cm정도의 석기가 50%정도 포함되어있다는것, 제작수법에서도 매우 세련되어있고 보다 발전된 제작수법들인 대고때려떼기나 눌러뜯기와 같은 수법들이 적용되었다는것 등을 통하여 명백히 알수 있다. 따라서 제2문화층은 구석기시대후기층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금옥동굴유적은 2개의 문화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여기서 아래문화층인 제1문화층은 구석기시대중기에 해당되고 웃문화층인 제2문화층은 구석기시대후기에 해당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